



오늘의 날씨 | 맑음 | 22℃/34℃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음력 6월 19일)

www.christiandaily.co.kr

제 1094호

기독일보

석간



구독신청 02-722-8165



“폭염 속 시원한 물줄기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18일 뜨거운 태양으로 말미암아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올라갔다. 한동안 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광화문 분수대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과 시민들의 모습.

박용국 기자

北核 개발로 북한주민 방사능 피폭…피해는?

NKDB 북한인권감시본부 “방사능 노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알 권리 침해당했다”

북핵 문제 공을 미국에 돌려서일까. 어느새 느슨해진 관심에 방사는 피폭 위험에 노출된 북한 주민들만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감시본부(이하 본부)가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를 다시금 다뤄내 주목받고 있다.

본부 측은 “올해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를 취재하기 위해 방북한 남측 기자단에게 실험장 옆 개울물을 마셔보라고 권한 북측 기자가 권한 사람이 먼저 마셔보라는 도발적 역제에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 개발 과정에서 방사는 피폭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북한 주민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이어 본부 측은 구체적인 현장 북한 주민들의 피해 사례들을 제시한 후, “핵 개발로 인해 북한 주민이 겪는 피해 중 첫

번째는 방사능 노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면서 “북한 당국은 중앙당 군수공업부 산하 131지도국(핵 개발국으로 군수공업부 산하지만 최고지도자 직속 비밀기관)을 통해 핵개발과 관련된 작업을 은밀히 추진하고 방사능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시설 건설 작업에 동원되는 인력에게 핵 시설 건설 작업인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본부 측은 “핵 시설 건설이나 핵 물질 채굴에 필요한 노동력은 군 북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거나(131지도국 산하 구성원, 군복은 입으나 인민무력성 소속이 아님) 풍계리 핵 실험 경로 건설에 정치범을 동원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밝히고, “두 경우 모두 핵 시설 건설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 사실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이러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주민이 인지하게 되고 사회적 공

포심이 생성될 경우 정권의 핵 개발에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본부 측은 건강상 피해에 대한 증언을 확보한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은 세 군데로 평안북도 영변군 핵 시설,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광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시설 등이다. 본부 측은 피해의 정도에 대해 “경미한 경우 근육 감소, 만성 두통, 감각 이상 증상에서부터 소아 림프암, 기형아 출산, 사망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길주군 출신 소아들의 중증 질환(림프암, 백혈병)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방사능 유출로 인한 유해성과 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례”라 주장했다.

때문에 본부 측은 “평안북도 영변군, 황해북도 평산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였거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전수를 대상으로 복수의 전문의료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추적조사 및 관리를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향후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축적을 바탕으로, 산하 북한인권감시본부를 통해 특정 인권 침해 항목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정례적 보고서 출간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산하 정작지원분부가 인권피해자, 귀환국군포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교육, 심리상담, 정작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감시본부는, 기존 NKDB의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 내부에 실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하였는바, 북한 내 ▶사형 ▶구금시설 ▶종교자유 ▶해외노동자인권 ▶핵·생물·화학무기와 인권 ▶마약류 ▶UN권고이행 ▶군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의 인식제고를 위한 문제제기를 통해 실제적인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활동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관련증언2면

홍은혜 기자

근로장려금 개정안,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목회자 가정 유리

세금환급액 형태로 지급, 종교인 과세에 부담 덜어

2018년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규모와 지급 범위가 2017년도 대비 무려 3배나 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된다. 2017년에 근로장려금은 모두 166만 가구에 1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가구나 자영업자 가정에 가구 수,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연간 소득액에 맞춰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 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증강시키고자 2009년부터 시작됐다.

부부 연간 소득액을 합산하여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EITC 지급 기준에 충족된다. 또한 가구원의 총 재산액 을 합쳐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가능하다.

이로서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85만원의 지원금에서 150만원을,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을,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3조 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투자 촉진을 확대하는 추경안을 8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금 지원은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이라며 “한 해 한 번 지급하던 것을 한 해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해 소득지원의 체감도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근로장려세

제 개편방안 뿐 아니라 공기업 투자 확대, 기업운영계획 변경, 내년부터 출범 후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 대하여 월 60만원 지원, 예비비로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20%나 확대된 60만명에게 내년도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전년도 대비 보다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정안도 담겨있다.

한편 언론 인터뷰에서 홍익대 배원기 교수는 2018년도부터 시작된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 가정에게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인회계사이자 홍익대 경영대학원에서 회계 및 세법 등을 가르치는 배원기 교수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목회자들은 금년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정부의 근로 보조금 확대로 종교인 과세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근로장려금(EITC)은 세금환급 방식이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 원 미만이면 지원 기준에 충족된다. 이어 그는 “이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이나 사업소득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선택에서 근로소득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목회자의 연간 사례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방식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살롬나비, 장신대 동성애 논란 관련 우려의 논평

행동하는 신학자·목회자들의 모임인 ‘살롬을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19일 논평을 통해 장로회신학대학교 ‘동성애 무지개’ 신학 사태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하고 학교 측에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살롬나비는 “장로회신학대학 ‘동성애 무지개’ 신학 사건은 선지동산의 영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라 지적하고, “예장통합 총회가 장신대 ‘동성애 무지개’를 막지 못하면 통합교단이 무지개로 덮일 것”이라 경고했다.

과거 세월 시간 당시 학생들은 동성애 성소수자 등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채 예배를 드렸는데, 살롬나비

는 이에 대해 “노아 언약의 왜곡”이라 지적하고, “장신대는 (이미) 친동성애 신문 및 각종 친동성애 행사로 인하여 많은 물의를 야기시켰다”면서 “장신대 당국 책임자들의 태도들은 교육적인 대책보다는 친동성애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장신대 학생들 가운데 커밍아웃학생이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경고하고, “미국 연합장로교(PCUSA) 및 프린스턴신대는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했다”며 장신대 동성애 무지개를 막아 통합 교단이 동성애 무지개에 덮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관련논평4면

조은식 기자

장로교의 뿌리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 기리는 기념대회 열린다

2019년은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출범식’이 6월 28일 오후 3시 부터 백석대 백석비전 센터 404호에서 개최됐다. 1519년 1월1일 마태복음 강해설교를 시작으로 스위스에서 전개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2019년에 500주년을 맞이한다.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고자 출범한 기념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사업계획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고신대 이신열 교수가 사회를, 다함께 찬송가 ‘큰 영광중에 계신 주’를 부르고 장신대 조용석 교수, 합신대 박상봉 교수, 총신대 안인섭 교수가기도를 했다. 이어서 500주년 기념대회장인 백석대 주도홍 교수가 출범사를 전했고,

평택대 안명준 교수가 요한복음 1:9-14절을 봉독한 이후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목사가 ‘육신이 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집행위원장 안양대 이은선 교수가 광고를, 신반포중앙교회 김지훈 박사가 축도를 전했다. 2부에는 백석대 주도홍 교수가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500주년 기념대회의 자문위원에 박종화, 김명혁, 손봉호, 김영한, 장종현, 김영복, 오정호, 김남준, 이재훈, 화종부, 권숙, 서한국, 임석순, 양병희, 최종천, 이찬수, 장현승, 박광서, 박완철, 권성수, 이규현, 박성규, 박영돈, 최홍준, 이수영 목

사가 참여한다.

학술위원회에는 이신열, 이은선, 박상봉, 강경림, 김재성, 안명준, 최현범, 조은식, 이승구, 소기천, 안인섭, 이경직, 유해무, 박경수, 조용석, 한병수, 박정식, 변종길, 김영주, 신원하, 김지훈, 김상구, 이현승, 장세훈, 정요석, 서창원, 이승진, 유창형, 이상용, 정원래, 우병훈, 유태화, 박찬호, 김신규, 이남규, 안상혁, 조성재, 임원택, 배정훈, 광인섭, 박용규, 이동영, 김요셉, 양신혜, 주도홍 등 약 50명의 신학자들이 참여한다.

발기인에는 이신열(고신대), 이은선(안양대), 박상봉(합신대), 강경림(안양대), 김재성(국제신대), 안명준(평택대), 최현범(부산중앙교회), 안인섭(총신대), 이경직(백석대), 조용석(장신대), 김지훈(신반포중앙교회), 김상구(백석대), 이현승(백석대), 정요

석(세움교회), 유창형(칼빈대), 정원래(총신대), 박찬호(백석대), 김요셉(총신대), 주도홍(백석대), 광인섭(서울백석대학교회), 공규석(천안백석대학교회), 이장형(청주백석대학교회), 양신혜(대신대), 유해무(고신대), 신원하(고신대), 이상용(총신대)가 있다.

500주년 기념대회 임원에는 대회장장을 주도홍 교수가 맡고, 공동대회장에는 강경림, 김재성, 안명준, 소기천, 최현범, 유해무, 이승구, 박정식, 변종길, 안인섭, 정미연 교수가 맡는다. 집행위원장은 이은선 교수가, 집행위원에는 이신열, 유창형, 조용석, 양신혜, 김지훈, 이경직 교수가, 총무에는 박상봉 교수가, 협동총무에는 김요셉, 배정훈, 이승진, 김상구 교수가, 간사에는 이현승 교수가 참여한다.

노형구 기자

대북제재 지속으로 北결핵 치료 어려움

미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었음에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아서 결핵 환자의 치료와 전염 예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는 북한의 중앙 결핵 예방 연구소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북한의 결핵 환자 19만 명의 치료를 지원했던 세계기금의 지원 중단으로 북한의 결핵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제내성 결핵(MDR-TB) 환자들이 많은 평양이나 대도시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외교관들도 결

핵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부터 1억 달러 이상을 북한의 결핵 퇴치를 위해 지원했던 국제원조기구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이 이달 초부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세계기금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원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평양뉴스**

올바른 신앙생활(막1:14,15, 롬 12:1,2, 요 14:1)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목사

제가 2008년 1월 13일 강변교회에서 은퇴한 다음 지난 10년 7개월 동안 주일마다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주로 방문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5년 전인 2013년 8월 11일 주일 여기 김천 상남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2018년 7월 22일 주일 여기 두 번째로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박연수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연수 목사님이 오는 교회생활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설교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성경은 “믿음”이 없는 죄 사함도 구원도 의롭다 함도 영생도 천국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막 2:5).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막 10:5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예수님께서 근심 격정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히브리서는 지적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히 11:6).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귀중한 것은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을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망국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때 평양에서 살았고 평양 제5인민학교에 다녔는데 공산당 정부가 일요일 날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학교에 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년 동안 일요일 날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벌을 받았고 때로는 정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결국 저는 11살 때 부모님과 동생들과 고향을 떠나 38선을 뛰어넘어 남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바로 지키며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 중에 어른들과 함께 38선을 넘다가 인민군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모두 손을 들고 서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손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남쪽을 향해 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0여분 동안 언덕을 넘고 파 발을 달리고 목에까지 차는 강을 건너서 무사히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 때 저에게는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스릴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살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38선을 넘은 그 사건은 저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다 더 귀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의 과수인 저를 너무 많이 축복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망국하신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 때문이지만 둘째는 아버지를 비롯한 순교

자들이 흘린 순교의 피 때문이고 셋째는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남쪽을 향해서 달려온 일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제가 월남 한지 2년 후에 평양에서 순교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너무 귀중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딤후 3:1-5) 오늘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와 같은 세속화와 인간화로 치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회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전파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도 “회개”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7,48).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제일 먼저 전파한 말씀도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2:38). 예루살렘교회는

“회개”하므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지에서 전파하고 증거한 것도 “회개”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행20:18,21).

“회개”는 “신앙생활”의 입문이고 과정이고 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인데 “회개” 없는 죄 사함도 구원도 의롭다 함도 영생도 천국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한 번 크게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참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와 “참회”를 계속해서 가자 많이 가장 처절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밤 낮 울면서 “회개”와 “참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 6:6).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시 51:3,4).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의 뒤를 이어 처절한 “회개”와 “참회”의 제사를 평생토록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 “죄인 중에 내가 과수니라”(딤후 1:15).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중한 종으로 사용하셨고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절한 “참회”의 고백 때문에 성 어거스틴과 길전주 목사님과 이기종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김치선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도 그 뒤를 이어서 “회개”와 “참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회개”와 “참회”가 없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고 위선적인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와 “참회”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센 사람은 “회

개”와 “참회”를 하지 못합니다. 의인의식을 지닌 사람은 “회개”와 “참회”를 하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도 “회개”와 “참회”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회개”와 “참회”의 제사를 드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정성껏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요 4:23).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죄인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눈물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시며 저들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눈물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들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제사”와 “예배”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하였고, 신약시대와 교회 시대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서 종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드린 예배의 모습 이 사도행전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행 20:7-11). 청교도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서 강조한 것은 주일성수와 예배였습니

다. 한국교회도 그 초기부터 주일성수와 예배를 강조해 왔습니다. 주일에는 온종일 모든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바쳐야 할 것을 엄격히 가르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6부 예배모범은 주일성수의 원리를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이 날은 주일인 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옮으며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 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예배”의 제사를 정성껏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사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을 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종일 거룩하게 지키며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앞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주일을 종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주일성수의 영적인 유산은 모두 저버리고 세속화와 인간화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날 종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 평생 주일에는 종일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주일을 종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에 나타난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몸이 지니고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